

오 만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6 |
| IV. 국제신인도 | 8 |
| V. 종합의견 | 10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310천 km ² | G D P | 663억 달러 (2016) |
| 인구 | 4.0백만 명 (2016) | 1 인 당 GDP | 16,535달러 (2016) |
| 정치체제 | 절대군주제 | 통화단위 | Omani Rial (OMR) |
| 대외정책 | 친서방 | 환율(달러당) | 0.39 (2016) |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북동쪽으로 오만 만, 동쪽과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접경하고 있음.
-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자원수출로 얻은 수익을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여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세습군주인 Qaboos bin Said 왕은 1970년 즉위 후 '20세기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현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왕위 승계와 관련된 불안정성이 존재함.
- 수니파 또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 타 이슬람 국가와 다르게 국민의 대다수가 이바디파(Ibadism)*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슬람교 내의 소수 종파들 중 하나로 온건한 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만과 잔지바르, 리비아, 동아프리카, 튀니지의 제르바 섬 및 알제리의 음자브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e | 2018 ^f |
|------------|------|-------|-------|-------------------|-------------------|
| 경제성장률 | 2.5 | 4.2 | 3.0 | -0.02 | 3.7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01 | 0.07 | 1.10 | 3.20 | 3.20 |
| 재정수지 / GDP | -1.1 | -15.7 | -21.6 | -13.0 | -11.5 |

자료: IMF

□ 원유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로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4.2%) 대비 하락한 3.0%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0.02%)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경제성장률은 원유가격 소폭 상승과 함께 2017년 9월말 가동이 시작된 카잔(Khazzan) 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3.7%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보조금 축소, VAT 도입 등으로 물가상승 전망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국제가격 안정으로 1.10%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및 2018년에는 보조금 감축과 부가가치세(VAT)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인해 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이 2018년 중 VAT를 도입할 예정이며, 세율은 5%가 될 전망

□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 전망

- 오만은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재정 구조로, 2012년 대규모 시위 이후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 민심수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2013년까지 흑자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 감소로 201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16년에는 -21.6%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연료 보조금 삭감, 공공 부문 채용 억제 등으로 -13.0%까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대량 전력 소비기업 앞 전력 보조금 삭감, VAT 도입 등의 영향으로 -11.5%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산업구조 다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 지속

- 정부의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천연가스 부문이 수출의 60%, 재정수입의 70%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 부국

-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인 309,500km²의 영토에 2016년 확인매장량 기준 54억 배럴의 원유(세계 점유율 0.3%, 세계 22위)와 0.7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0.4%, 세계 27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임.

□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 보유

- 오만은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 지역인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 인도,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GCC 회원국들 중에서도 지정학적 이점이 큰 국가임.
- 오만 정부는 2015년 4월 개최된 ‘GCC 공급망 및 물류 컨퍼런스’에서 ‘SOLS’(Sultanate of Oman Logistics Strategy 2040)을 발표하였으며, GDP 대비 물류 산업 비중을 2014년 3%에서 2040년까지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오만은 종합물류단지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 물류 및 투자 제도 개선, 항공 및 항공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하여 물류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르(Sohar)항에 무역 기능을 집중시켜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서 성장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다. 정책성과

□ ‘Oman Vision 2020’ 경제개발계획 추진

- 오만 정부는 1976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였으며, Post-Oil 시대를 대비하고 향후 25년 동안의 비전 수립을 위해 1995년 6월 “The Vision for Oman’s Economy: Oman 2020”을 발표하였음.
- Oman Vision 2020에서 산업구조 다각화, 국민생활 수준 향상,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 설립 장려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현재 9차 5개년 개발계획(2016~20년)이 진행 중임.
- Oman Vision 2020의 일환인 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목표는 연간 평균 3% 성장률 달성, 석유의 GDP 기여도 26%로 축소, 민관협력(PPP)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투자액은 410억 오만리알 (약 1,051억 달러)에 달함.

□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Omanization) 지속 추진

- 오만 정부는 실업률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민 고용 의무화 정책인 Omanization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관광업의 경우 90% 이상을 오만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산업 부문별로 자국민 채용비율을 관리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e | 2018 ^f |
|-----------------|--------|---------|---------|-------------------|-------------------|
| 경 상 수 지 | 4,206 | -10,970 | -12,319 | -8,326 | -7,327 |
| 경 상 수 지 / G D P | 5.2 | -15.7 | -18.6 | -11.6 | -9.7 |
| 상 품 수 지 | 25,677 | 9,118 | 6,257 | 10,197 | 11,736 |
| 수 출 | 53,566 | 35,682 | 27,544 | 32,910 | 36,243 |
| 수 입 | 27,889 | 26,564 | 21,287 | 22,713 | 24,507 |
| 외 환 보 유 액 | 15,948 | 17,191 | 19,931 | 17,762 | 17,662 |
| 총 외 채 잔 액 | 28,026 | 36,087 | 47,007 | 51,552 | 55,608 |
| 총 외 채 잔 액 / GDP | 34.6 | 51.8 | 71.0 | 71.8 | 72.5 |
| D S R | 2.9 | 3.0 | 4.0 | 4.8 | 5.3 |

자료: IMF, EIU, OECD.

□ 원유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전망

- 오만은 석유·가스 부문이 수출 수입(收入)의 60%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민간 부문의 인력을 대부분 외국인에게 의존함에 따른 본국 송금*과 2014년 중반 이후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5.7%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경상이전수지(억 달러) : 103.0('14) → 110.0('15) → 102.7('16) → 103.8('17^e)

-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국제유가 소폭 회복으로 2016년 (-18.6%) 대비 개선된 -11.6%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카잔(Khazzan) 가스전 가동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9.7%로 개선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안정적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제채 발행 등을 통해 2015년 172억 달러에서 2016년 19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수입액 5개월분 이상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총외채잔액 증가세

- 저유가에 따른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금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16년 71.0%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71.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D.S.R은 4.8%로 양호한 상황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Qaboos 왕이 안정적으로 집권 중이나 고령으로 인한 후계구도 문제 잠재

- 1970년 부왕(父王)을 무혈 쿠데타로 축출하고 즉위한 Qaboos 국왕은 오만의 근·현대화를 주도, 이슬람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온건한 정치·종교 성향을 사회에 정착시켜 오만을 중동의 모범 국가로 만들었으며, 대내외적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
- “아랍의 봄” 여파로 2012년 오만에서도 급여 인상, 고용률 제고,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는 연속적인 시위가 발발하자, Qaboos 왕은 이에 대응하여 정치·경제 개혁을 단행하였음.
- 정치·사회적으로 경찰청장 등 문제 각료를 경질하는 등 내각을 교체하고 검찰 독립을 강화하였으며, 경제 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 실업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짧은 시간 안에 사태를 수습하였음.

- 그러나 현재 77세(1940년생)인 국왕의 건강이 최근 들어 악화되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국왕 유고시 국왕 가족들로 구성된 통치가문위원회가 3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후계자를 정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후계자의 이름을 남긴 국왕의 편지를 개봉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2012년 시위 이후 안정적 정국 유지

- 2012년 일명 “아랍의 봄”이라 불리우는 중동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Qaboos 국왕의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인근 중동 국가들에 비해 안정된 정치상황으로 소요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대내외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Qaboos 국왕의 안정적인 통치하에서 특별한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왕 사후 후계자 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불안 고조 가능성이 우려됨.

3. 국제관계

□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 아랍 국가들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는 오만은 미국 및 영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980년 6월 방위협정 체결을 통해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2006년 1월 FTA를 체결하였음.

□ 중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 관계 유지

- 오만은 여타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 소수 종파인 이바디파(Ibadism)인 관계로, 과거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카타르 단교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와 국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타르 단교 사태 이후 오만 국영항공회사 Oman Air의 무스카트-도하 노선을 증편하는 등 중립적인 외교노선을 이어가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2017년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 발생을 계기로 6월 초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양숙인 이란과도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오만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등이 추진 중이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오만의 두쿰(Duqm) 지역에 있는 Sino-Omani Industrial City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는 오만과 인도를 잇는 1,100km 길이의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을 고려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리스케줄링 경험 없고 D.S.R. 양호

- 2017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71.8%로 높은 편이나, D.S.R.은 4.8%로 양호한 수준이며 리스케줄링 경험도 없음.

IMF와 세계은행 앞 연체 없음

- OECD에 의하면 2017년 6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쿠웨이트에 대한 여신은 106억 달러이며, OECD 회원국 ECA와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OECD 3등급, Moody's 및 Fitch 투자적격 등급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는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대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최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Moody's와 Fitch는 여전히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OECD는 오만에 대하여 2004년 10월 이후 계속 2등급을 유지해 오다 2016년 1월 쌍둥이 적자 누적, 외환보유고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2017년 1월 평가회의에서 기존 등급을 유지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 종전 평가 등급 | |
|---------|----------|-----------|----------|-----------|
| OECD | 3등급 | (2017. 1) | 3등급 | (2016. 1) |
| Moody's | Baa2 | (2017. 7) | Baa1 | (2016. 5) |
| Fitch | BBB- | (2017.12) | BBB | (2017. 6)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4년 3월 28일 (북한과는 1992년 5월 25일)
- 주요협정: 항공업무협정('87), 문화협정('95),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04), 이종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06), 외교관사증면제협정('15)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9월말 기준 51건, 7.5억 달러
- 교역규모
 - 2016년 기준 대 오만 교역규모는 30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6억 달러,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2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오만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 2014 | 2015 | 2016 | 주요 품목 |
|------|-----------|-----------|-----------|------------|
| 수 출 | 1,171,639 | 939,410 | 615,572 | 자동차, 철강관 등 |
| 수 입 | 4,596,803 | 2,888,281 | 2,367,845 | 원유, 천연가스 등 |
| 교역규모 | 5,768,442 | 3,827,691 | 2,983,417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오만은 최근 저유가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2017년 마이너스 성장(-0.02%)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원유 가격 소폭 상승과 더불어 가스전 신규 가동에 따른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3.7%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감소로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유가 소폭 회복과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GDP 대비 재정·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11.5% 및 -9.7%로 개선될 전망이다.
- ‘아랍의 봄’ 여파로 2012년 시위 사태가 발발하였으나 Qaboos 왕의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왕의 나이와 후계구도 문제는 향후 잠재적 불안 요소임.
- 서방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도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에도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
- 쌍둥이 적자 보전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하여 2017년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71.8%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D.S.R.은 4.8%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월평균수입액 5개월분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기성(☎02-6255-5727)
E-mail : ks.lee@koreaexim.go.kr